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동물실험 대체 기술로 中 시장 공략

중국 '헬스케어 서밋 2026' 참가
오가노이드 치료제 확장 가능성 제시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협력 모색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CTO가 'BioCentury China Healthcare Summit 2026'에서 오가노이드 기술과 NAMs 시대의 신약개발 활용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바이오센추리-베이헬릭스 차이나 헬스케어 서밋(BioCentury-BayHelixChinaHealthcareSummit) 2026'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사업 비전과 차세대 신약개발 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글로벌 바이오 전문매체 바이오센추리와 바이오산업 리더 네트워크 베이헬릭스가 공동 주최하고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가 참여했다. 중국·미국·유럽·아시아의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창업자, 다국적 제약사 사업개발(BD) 책임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투자 및 사업화 전략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파트너링 행사로 꼽힌다.

올해는 중국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시장 내 역할 확대가 핵심 화두였다. 중국산 신약 후보물질의 해외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글로벌 제약사의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에셋 소싱), 공동개발 및 투자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3일 기업 발표 세션에 연사로 나서 회사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NAMs·New Approach Methodologies) 시대에 오가노이드 기술이 신약개발 산업에서 맡을 역할을 설명했다.

발표의 핵심은 동물실험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을 넘어, 인체 유래 오가노이드로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접근법이었다. 이 CTO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 'ODISEI'를 중심으로 항암제 효능 평가, 독성 예측, 환자 유래 질환 모델 구축 등 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인체 관련성이 높은 평가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플랫폼 '아톰(ATORM)'의 개발 현황과 글로벌 임상개발 전략도 함께 공개하며 오가노이드를 신약개발 지원용 평가 도구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재생의료 치료제로까지 확장하고 할 수 있다고 비전을 보였다.

이경진 CTO는 본 행사에 앞서 1일 쑤저우에서 열린 사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석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CEO 및 창업자들과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기간 회사는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과 별도 미팅을 갖고 오디세이(ODISEI) 플랫폼을 활용한 후보물질 효능·독성 평가 및 공동연구 가능성도 타진했다. 중국 바이오기업이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과 자사 오가노이드 평가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중국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신약개발과 기술이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유망 후보물질 발굴만큼이나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NAMs 시대에 오가노이드는 신약개발의 효율성과 예측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광동제약, '장원환' 과학적 효능 규명

국제학술지 '파마슈티컬스'에 게재
기억 형성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 증가

광동제약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한방 처방 '장원환'의 기억력 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논문이 SCIE 등재 국제학술지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의보감에 수록된 '장원환'의 기억력 개선 효과와 약리학적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문헌에는 장원환에 대해 '하루에 천 마디 말을 외우고 가슴에 만 권의 책을 간직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연구진은 정상 생쥐와 스코폴라민을 투여해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 생쥐에 장원환을 각각 28일, 14일간 투여한 뒤 기억력 변화와 뇌 신경세포 활성 등을 분석했다.

실험 결과, 정상 생쥐와 기억력 손상 생쥐 모두에서 기억력 관련 행동 수행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과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시냅스 가소성 관련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했으며, 뇌의 해마에서 신경세포 활성화와 콜린성 신호 전달이 강화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 결과가 게재된 '파마슈티컬스'는 의약품의 약리작용과 신약 개발 등을 다루는 국제학술지다. 2025년 기준 피인용지수(IF)는 5.7이며, 약리학·약학 분야 상위 25%에 해당하는 Q1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전통 한방 처방의 약리학적 특성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천연물과 생약 분야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 의약품의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4월 동의보감에 수록된 장원환 처방을 기반으로 개발한 일반의약품 '기어케어정'을 출시했다. 총명탕의 주요 구성 생약으로 알려진 원지, 석창포, 복신 등을 포함해 총 11종의 한약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개선 및 신경안정에 효능·효과가 있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3분기 영업익 첫 1000억 돌파

매출 2584억, 영업익 1163억

SK바이오팜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584억원, 영업이익 1163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9% 늘어난 수치다.

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용역수익이 반영된 분기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3031억원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회사측은 이번 실적이 전분기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달성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세노바메이트의 원화 환산 매출은 환율 영향을 받았지만 달러 기준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환율 하락 등에 따른 판매관리비 감소와 용역수익 증가도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했다.

3분기 기타매출은 348억원으로,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DP/API) 매출 59억원과 용역수익 289억원으로 구성됐다. 용역수익에는 로열티 수입 외에 아시아 임상 관련 진행매출과 마일스톤 수익 등이 포함된다. 3분기 누적 기타매출은 약 880억원으로, 연간 기타매출 가이던스 1100억원을 유지했다.

3분기 판매관리비는 133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1억원 감소했으며, 누적 판매관리비는 연간 가이던스 5700억원의 약 69%인 3922억원을 기록했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3분기 미국 매출은 1억5681만달러, 원화 기준 2236억원을 기록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4.9%,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규모다. 환율 하락으로 원화 기준 매출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9% 늘었다.

/이세경 기자

알에프바이오, 가톨릭대와 재생소재 개발

미토콘드리아 기반 차세대 소재 연구


알에프바이오 전신수 회장(가운데), 조재규 대표(왼쪽)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토콘드리아 면역의학 연구센터 (MIGHT) 조미라 교수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알에프바이오가 가톨릭대학교와 차세대 재생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알에프바이오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미라 교수와 '미토콘드리아 대사 조절 기반 차세대 생체재생 적합성 바이오소재 개발 기술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알에프바이오의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역량과 조미라 교수의 의생명과학 분야 연구 전문성을 연계해 차세대 재생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미토콘드리아 대사 조절을 기반으로 생체재생 적합성을 고려한 차세대 바이오소재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재생 바이오소재의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의료미용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알에프바이오는 기존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세포 대사 및 조직 재생과 연계된 차세대 바이오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차별화된 재생 바이오소재 개발과 신규 제품 파이프라인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시그닉 모델에 키키 지유

애경산업이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닉' 새 브랜드 모델 '지유'와 함께 국내부터 향후 일본 시장 진출까지 브랜드를 확산하는 마케팅에 착수한다. 지유는 K팝 걸그룹 키키 멤버다.

애경산업은 시그닉이 추구하는 '확실한 효능과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에 지유의 맑고 건강한 이미지가 부합해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그닉은 피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품력은 물론 매일 손이 가는 디자인과 제형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지씨씨엘, 한미약품 비만 신약 개발 뒷받침

임상 3상 통합 분석 성공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이 첫 국산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 통합 분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대규모·고난도 비만·대사질환 임상시험 수탁(CRO) 역량을 입증했다.

지씨씨엘은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국산 비만 신약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시험에 약동학(PK) 분석 및 센트럴랩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성과에 함께했다고 5일 밝혔다.

에페는 한미약품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개발 및 상용화까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국내 첫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이다.

지씨씨엘은 에페의 국내 임상 3상에 참여해 약 30개 임상기관에서 수집한 검체의 수거, 운송, 보관 및 분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 약물의 체내 농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약동학 분석을 비롯해 주요 임상검사 데이터 구축을 수행했다.

특히 지씨씨엘은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재현성이 요구되는 약동학 분석 및 임상검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해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을 뒷받침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비만·대사질환 분야의 임상시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는 "한미약품이 국내 기술력으로 이뤄낸 첫 비만 신약 개발이라는 뜻깊은 성과에 임상시험 분석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씨씨엘이 보유한 전문 분석 역량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성공적인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